

# 독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 국가 특별 전시회를 중심으로

안중철 튀빙겐 대학교 인문대 교수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Wittenberg Castle, 현재 작센-안할트 주 소재) 문 앞에 가톨릭의 교리를 반박하는 95개조의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유럽 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과 북미, 19세기 아시아 선교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원에 해당된다. 종교개혁의 모태 국가인 독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크고 작은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독일 전역에 걸쳐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행사들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다.

독일 전역에서 진행되거나 거행될 예정인 여러 종교개혁 관련 행사들을 위해 독일 정부도 적극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관광청은 종교개혁 관련 방문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과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루터와 관계있는 도시들과 대도시들을 잇는 8개의 다양한 탐방길을 소개하고 있다.(www.germany.travel/index.html→스페

셜→루터→루터 루트) 더불어 독일과 유럽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루터에 대한 새로운 연구서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sup>1</sup> 또한 루터와 그의 시대에 대한 일반 대중을 위한 소개서들도 출간되고 있다.<sup>2</sup>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독일 전역에서 수백 개의 행사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필자가 몸담고 있는 튀빙겐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Evangelisch-Teologische Fakultät)는 종교개혁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최소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과 관련된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교개혁 관련 새로운 저술도 소개하고 있다.<sup>3</sup> 아울러 종교개혁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했다.<sup>4</sup> 신학대학을 둔 대부분의 독일 대학교는 다양한 학술회의, 초청강연회 등을 진행할 것이다.

수많은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행사를 여는데, 그 자체로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대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보름스(Worms)는 1521년 루터가 신성로마제국 의회(Reichstag zu Worms)에서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재판관을 받은 지역이다. 그런 연유로 보름스에서도 올해 매우 큰 종교개혁 행사를 진행 중이다. 보름스 시내 각처에서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Luther 2017-500 Jahre Reformation")를 진행한다.

지역의 행사를 하나하나 다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독일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 특별 전시회(D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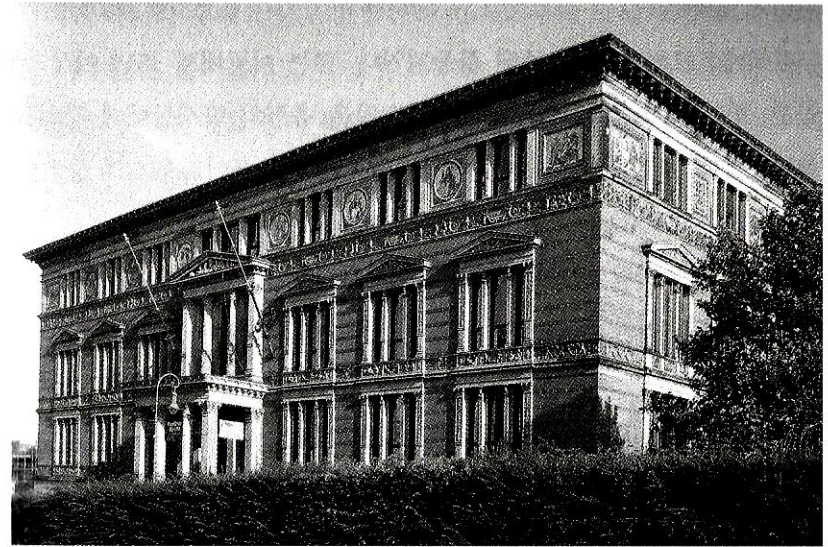


Nationalen Sonderausstellungen) 세 개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특징을 언급하고자 한다.

### “루터의 영향: 세계에서의 개신교 500년”

2017년 4월 12일에 개막해서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회의 제목은 “루터의 영향: 세계에서의 개신교 500년”(Der Luthereffekt. 500 Jahre Protestantismus in der Welt)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종교개혁의 세계사적인 영향을 주목하는 전시이다. 전시가 진행되는 곳은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역사박물관(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at Martin-Gropius-Bau, 주소: Martin-Gropius-Bau Berlin, Niederkirchnerstraße 7, 10963 Berlin)으로 베를린 장벽에서 가깝다. 이 곳은 1877-81년에 지어진 대형 전시공간으로 독일제국 황실의 예술박물관으로 시작된 곳인데, 지속적으로 보수되어 오늘날에도 중요한 전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 미디어와 관련된 독일 정부(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산하의 7개 박물관과 재단 등이 이 건물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건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그만큼 독일 정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전시회는 종교개혁 이후 전 세계에서 나타난 개신교의 다양성과 역사적 변화 및 영향을 다룬다. 그리고 각 지역과 문화에 따른 개신교 자체의 갈등도 보여준다. 즉 다양한 종교적 신조와 교파, 그리고 삶의 방식에 미친 종교개혁의 유산과 가르침이 각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다룬다. 이 전시회는 종교개혁 전후인 1450년부터 1600년의 독일과 유럽, 1500-1750년의 스웨덴의 상황, 그리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1600-1900년의 북미 지역, 개



독일 역사박물관

출처: Wikipedia(<https://de.wikipedia.org/wiki/Martin-Gropius-Bau>)

신교 전래 이후 아시아의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인 한국의 1850-2000년 상황, 오늘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종교적 상황 등도 다룬다. 약 3,000m<sup>2</sup>에 달하는 엄청난 공간의 전시물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 밖에서 빌려온 것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전시물들은 잘 정리된 도록으로 출판된다.

### “루터! 95명의 사람들과 95개의 보물들”

이 전시회는 루터가 가장 오랫동안 생활했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도시 비텐베르크(Lutherstadt Wittenberg)에서 “루터! 95명의 사람들과 95개의 보물들”(Luther! 95 People-95 Treasures)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다. 제1부는 2017년 4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제2부는 8월 3일에서 11월 5



일까지 열린다.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주된 활동지였다. 그는 이곳에서 35년 이상 살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수많은 유럽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 그가 이곳에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기에 루터하우스의 중요한 공간(Collegium Augusteum)에서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 제목처럼 제1부 전시회의 핵심은 루터의 95개조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95개의 보물들은 젊은 루터가 처한 환경을 다루는데, 무엇이 어떻게 루터를 종교개혁가로의 길로 이끌었는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제2부는 루터와 관련된 95명의 사람들을 다루는데, 이들을 루터와 그의 저작들과 연관시킨다. 이들은 독일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고,



비텐베르크의 루터하우스

당대만 아니라 후대 인물도 포함한다.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인물들을 다루는데, 흥미롭게도 혁명가, 계몽가, 저술가, 예술가, 철학자 등을 아울러 다룬다. 예를 들어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괴테라든가 미국의 기업경영자 스티브 잡스 등 루터에게서 영감을 얻은 인물들이 언급된다.

### “루터와 독일인들”

루터가 태어난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Wartburg, 현재 튀링겐 주 소제)에서는 2017년 5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루터와 독일인들”(Luther and the Germans)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개최된다.

유서 깊은 바르트부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루터 유적지로(연간 35만 명 이상), 루터가 보름스에서 신성로마제국의 심판대 앞에 선 이후,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 않고 숨어 있던 장소이다. 루터는 이곳에서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당시 번역한 독일어 성서가 오늘날 독일어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 나아가 루터와 루터교는 사실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육에 대한 강조라든가, 결혼한 ‘부르주아지’ 성직자의 등장 등은 향후 독일 문화국가라는 독일인들의 자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525년의 농민전쟁이라든가 30년전쟁(1618-48) 등이 일어났고, 기독교 내에서 다양한 교파의 분열이 뒤따랐다.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의 권위는 후일 동독(GDR)이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데 적극 이용되었다. 흥미롭게도 루터가 활동한 지역들 모두 구동독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동독 정권은 1983년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루터의 부르주아지-민주주의를 시발점으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

로 주장하면서 구동독의 성립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다.<sup>5</sup>

이 외에도 이 전시회는 독일 역사의 중요한 국면들이 루터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보여준다. 즉 문화적·정치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종교개혁과 루터의 사상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독일에서 열리는 세 개의 루터 관련 기념전시회에 대해 살펴보았다.<sup>6</sup>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에는 독일 전역, 더 나아가 기독교권 전역에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다양한 행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종교개혁의 상황이 여전히 현재진행이기 때문일 것이다.<sup>7</sup>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종교개혁 기념행사를 통해 종교개혁 수용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반추할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기산**

주(註)

- <sup>1</sup>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Lyndal Roper, *Martin Luther: Renegade and Prophet*(London: The Bodley Head, 2016); Heinz Schilling, *1517 Weltgeschichte eines Jahres*(München: Verlag C. H. Beck, 2017). 첫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로퍼의 저서로, 마르틴 루터의 내면적인 복잡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유럽사 교수 쉴링의 저서로, 종교개혁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상황 등을 시야에 넣어 광범위한 세계사 서술을 시도하였다.
- <sup>2</sup> 역시 대표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Thomas Kaufmann, *Martin Luther*(München: Verlag C. H. Beck, 2016); Veit-Jakobus Dieterich, *Martin Luther: sein Leben und seine Zeit*(München: dtv, 2017). 첫 번째는 괴팅겐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 카우프만의 책으로, 대중을 위해 쓴 간략한 루터 소개서이다. 두 번째는 한 사범대학교(Pädagogische Hochschule Ludwigsburg)에서 신학과 교육학을 가르치는 디트리히 교수의 저서인데, 이 책도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루터와 그의 시대를 소개한다.
- <sup>3</sup> 튀빙겐 대학교에는 가톨릭 신학대학과 개신교 신학대학 두 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신교 신학대학 내 교회사 연구팀, 특히 후기 중세 및 종교개혁연구소(Institut für Spätmittelalter und Reformation)의 볼커 레핀(Volker Leppin) 교수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 웹페이지([goo.gl/zfpbxG](http://goo.gl/zfpbxG))를 통해 종교개혁에 관한 다양한 초청강연 목록을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어 서적을 주로 소개하는 페이지([goo.gl/BJ3bYx](http://goo.gl/BJ3bYx))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sup>4</sup> 2017년 3월에 튀빙겐 대학교에서 개최된 종교개혁 관련 학술회의는 “종교개혁의 예술인가, 예술의 (종교)개혁인가?”(Kunst der Reformation Reformation der Kunst?)라는 흥미 있는 제목의 행사였다.([goo.gl/HJDPd](http://goo.gl/HJDPd) 참조)
- <sup>5</sup> 이에 대한 역사학의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Stephen P. Hoffmann, “The GDR, Luther, and the German Question,” *The Review of Politics* 48권 2호(1986): 246-263.
- <sup>6</sup> 세 개의 특별전시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웹페이지([goo.gl/AiAVdM](http://goo.gl/AiAVdM))를 참조하라.
- <sup>7</sup> 독일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종교개혁 행사는 웹사이트([www.luther2017.de](http://www.luther2017.d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종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하와이 대학교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군정에서 활동한 선교사 2세들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국적, 이민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등이 있다. 현재 튀빙겐 대학교 인문대의 중국-한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